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김창인 목사 성역 60주년 기념 감사예배, 5월 15일 오후 7시 30분에

기념감사예배에 앞서 오후 6시 만나홀에서 축하연
《김창인 목사와 충현교회》 발간, 장학재단 설립 등 사업도
파송선교사 전원 귀국 '97충현선교대회 열기도

교회는 오는 5월 15일(목) 오후 7시 30분에 김창인 목사 성역 6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오는 5월 15일(목)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드리는 성역 60주년 기념감사예배는 초교파적으로 초청받은 인사들과 해외선교사 부부 전원, 전 교인이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

예배의 사회는 예종탁 목사(총회 서기), 기도예송은 위광필 목사(예성 총회장), 성경봉독은 장정탁 목사(동서울노회 노회장), 설교에 김준규 목사(총회장), 축사에 최 훈 목사(한기총 회장), 박종순 목사(통합 총회장), 축도에 지원상 목사(루터교 총회장), 연보 보고에 윤영탁 목사(협동목사), 인사 및 광고에 김은호 장로(당회 서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예배에 앞서 오후 6시부터는 만나홀에서 축하연이 베풀어진다.

또한 아래와 같은 기념행사 및 기념사업을 실시한다.

1. 《김창인 목사와 충현교회》 발간

김창인 목사의 성역 60년 동안의 역정과 인생, 충현교회에서의 44년 등의 내용이 담긴 《김창인 목사와 충현교회》라는 책을 발간하여 그날 참석자 전원에게 기념 타올과 함께 이 책을 선물로 주게 된다.

2. 장학재단 설립

현재 교회 장학제도를 '충현소석장학재단'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30억원을 목표로 '천국일꾼을 키우자'는 김창인 목사의 교육이념을 실현토록 한다.

3. 수양관 설립

현재의 기도원을 이전하면서 종합수양관을 건립함으로써 교회와 교인들이 이용하여 신앙생활에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4. 해외성지연구소 건립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에 성지연구소를 건립하여 올바른 성경적 역사관을 성지 순례자들에게 전하고 장차 이스라엘 선교의 교두보로 삼고자 한다.

5. '97 충현선교대회

선교사 전원이 귀국함에 따라 이번 기회에 선교사들의 선교보고 및 간증집회, 조찬기도회, 선교사와의 대화, 선교정책 및 전략회의 등의 시간을 갖는다.

김창인 목사는 21세가 되는 1936년 3월, 평북 의주군 주내면 창전교회의 전도인으로 사역하고 그 이듬해 의주군 월화면 추봉동의 해천교회의 전도사로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목회의 길로 들어서서 오늘날까지 목회활동을 해왔다.

23세가 되는 1938년, 일제의 신사참배 운동에 반대하여 신앙 투쟁을 계속하여 왔고, 해방후 북한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출옥 성도들과 함께 교회 재건운동을 시작, 일곱번이나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어려움을 겪었다.

당회장 김창인 목사는 교회의 새로운 재건운동을 위해 월남하여 부산에서 동일교회를 개척하였고, 서울 수복후 갯더미가 된 서울에서 1953년 9월 6일 주일에 18명의 교인과 함께 오늘의 충현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목회 60년, 충현교회에서만 44년 동안 김창인 목사는 어렸을 때 받은 철저한 청교도적이고 순교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한 영력 넘치는 설교와 자신의 삶을 통한 실천의 본을 보이며 충현교회를 성장시켜 왔고 또한 타고난 지도력으로 교회학교를 부흥 발전시켜 한국 교회에 기여하고, 경목 사업의 시행, 농어촌교회 교역자, 평신도 훈련, 전교인 성경공부, 구역권찰회의 현대적 운영체계 등을 실시함으로써 전국 교회가 이를 본받아 시행하게 하여 한국 교회에 해외선교의 불을 당겼고, 냉전이 한창인 시대에 북한 선교를 주창하여 오늘날 각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북한 선교의 물꼬를 트게 하기도 했다.

생애의 마지막 사업으로 높은 해안을 가지고 강남에 교회당 부지를 선정 10여년의 우여곡절 끝에 새 예배당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완공케 함으로 늘 말씀하시던 후손에게 물려줄 신앙 유산과 예배당을 갖게 되었다.

이제 모든 목회의 마침이 되었다 싶었으나 새로운 세대와 물려오는 세속주의의 격랑 가운데서 끝까지 복음의 본질을 훼손없이 지켜 수많은 신학 사조와 주의, 운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건전한 교회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애써 오신 동안 성역 60주년을 맞게 된 것이다.

따라서 충현교회 당회는 김창인 목사의 성역 60주년을 기하여 김창인 목사의 신앙과 목회 활동을 정리하여 온 교회에 알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역

60년 동안 가르치고 행한 일사각오의 순교적 신앙을 성도들에게 깨우쳐 주며, 김창인 목사의 수고를 위로하고, 또한 김목사가 평소에 실천하려고 소원하던 복

음 사업을 충현교회가 이어받아 실천하고자 '김창인 목사 성역 60주년 기념 행사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준비해 왔다.

'97충현선교대회

5월 12일(월) ~ 22일(목)

선교보고 및 간증집회, 조찬기도회, 선교사와의 대화, 선교정책을 위한 전략회의 등 실시

선교위원회는 오는 5월 15일 김창인 목사 성역 60주년 기념감사예배에 본 교회 파송 선교사 부부를 초청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피차 교제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선교현황을 청취하고 현안을 서로 의논하여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덜어 주며, 나아가 21세기를 지향하는 선교전략을 세우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이번 '97 충현선교대회는 5월 12일(월)에 청년교구 주치의 세미나에 참석하고 5월 17일(토) 오전 6시 30분에 교역자, 장로 부부와 함께하는 조찬기도회에도 참석한다.

5월 14일에는 선교위원회 실행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실행위세미나를 열고 저녁에는 선교위원장 노광현 장로실에서 함께 식사하며 간담회를 갖게 된다.

5월 15일에는 김창인 목사 성역 60주년 기념예배에 참석하고, 5월 16일 금요일 집회에는 선교사 부부 전원이 참석하여 선교보고대회 및 간증을, 5월 18일(주일) 오후 3시~4시 50분에 갈릴리홀에서 선교보고 및 선교사와의 대화 시간을 전교인을 대상으로 갖게 된다. 이 시간에는 각 개인이 직접 선교사들에게 궁금했던 것을 질문할 수 있다.

5월 19일(월)~22일(목)에는 설악산에서 선교정책 및 전략회의를 갖게 된다. 이때는 선교사, 실행위원이 함께 모이게 된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충현교회 선교의 현주소를 빠르게 확인하고 앞으로의 선교전략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선교에 대한 바른 관점과 이해를 갖도록 돕게 될 것이다.

이번에 귀국하는 선교사와 체류일정은 다음과 같다.

육호기 선교사(5월14~28일)
이준교 선교사(5월10~22일)
김주경 선교사(5월 3~6일 이후)
안석렬 선교사(5월8~21일)
김은태 선교사(5월13~공식일정후 1-2일후)
김영대 선교사(5월 3~27일)

한편 이와같은 일정과 행사 외에도 5월 12~17일 새벽기도회를 선교사들이 인도(김영대, 이준교, 안석렬, 김주경, 김은태, 이준교 선교사)하고 5월 11일 주일 예배의 설교를(1부 김영대, 2부 이준교, 4부 김주경 선교사)하고, 18일 주일 예배(1부 김은태, 2부 안석렬, 4부 육호기 선교사)의 설교를 담당하게 된다.

그밖에도 대회 기간 중 금요일집회 및 수요일부에도 선교사들이 설교를 하며 선교적 이해를 돕게 된다.

5월 11일 당회장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앞두고서 각 교인의 가정으로 괴 문서(유인물)가 발송되기도 합니다.

유인물을 보낸 김정태는 1992년 12월 6일 치리당회에서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고 유인물을 배포하고 교인을 현혹케 하며 당회원에 폭언을 하는 등의 이유'로 당회원 전원일치로 충현교회에서 제명 출교된 사람입니다.

이를 아시고 교인들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충헌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정당한 예배를 드리라

(시편 50:1-15)

본 시편의 저자 아삽은 성가대의 지휘자로 시를 쓰며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저작 배경을 살펴봅시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충실히 믿는다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실상은 충성하는 신실한 종 다윗 장군을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간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생활은 하나님의 원수 노릇,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울 왕도 때로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울기도 했지만 결코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당까지 찾으며 점을 치곤 했습니다. 사울 왕은 이와 같은 악행을 하며 회개하는 기회를 놓쳐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즉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사울 왕의 세 아들은 도망을 가며 특별히 죄가 없는 큰 아들 요나단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울 왕 자신은 자기의 칼을 가슴에 대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것을 직접 본 아삽이 하나님 앞에 그릇된 예배를 드리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후세에게 전하여 성도로 하여금 올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권면하기 위하여 시편 50편을 쓴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심판

(1) 완전하십니다

세상에는 각 나라마다 재판장이 있습니다. 재판장은 그 나라 국가가 제정한 법으로 공평하게 판결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땅 위의 재판장들은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사건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양심의 등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셋째, 불의한 권세가 누르기 때문입니다. 땅 위의 재판에는 이처럼 완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억울하다고 고등법원에 상소를 하고 그래도 억울하면 대법원에 상고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재판이 없고 오직 심판이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 번, 세 번이 필요없는 전능하신 단심의 심판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해 돋는 때서부터 해지는 때까지 세상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즉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구별함이 없이 햇빛 밑에 자라는 곡식을 먹는 사람은 전부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면한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입니다.

(2)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빛은 온전한 시온에서 발합니다. 이 빛은 사람의 심령 끝수를 쫓습니다.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을 발하실 때 자기의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새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데도 우물쭈물하며 자기의 죄를 남에게 핑계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소돔 고모라를 태우는 그 불로 멸망하게 됩니다. 육지는 불로 심판이 되고 사방에서 광풍이 불며 바다에 풍랑을 일으킵니다. 이때에 죄인이 어디에 가서 숨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도 세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만을 인식해서는 안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닙니다. 범죄한 자에게는 지옥을 준비하시는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되 성도부터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부터 잘 다스려야 합니다. 남의 잘못을 책망하기 전에 우선 내 잘못을 회개하고 대신 남의 잘못은 부드럽게 용서를 해주어야 합니다.

2.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성도들은 형식과 마음이 합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내용만 있으면 된다고 예배의 형식을 무시합니다. 겉대기 없이 속만 자라는 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식과 내용이 조화된 예배를 원하시므로 어느 한 쪽으로든 치우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야고보서 전체 가운데 54절이 행위에 대한 명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공부하면 행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나타내어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면 안됩니다.

“내가 네 집의 수소나 수염소를 원하더냐. 내가 가령 주린대 해도 내가 너의 수소나 수염소를 꼭 먹어야 살겠다고 하더냐”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천지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을 임의로 관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쳤다고 해도 내 것을 바쳤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친다고 해도 형식만으로는 안되고 형식이 우리 마음의 중심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와 제물을 흠향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고 물어 보아야 합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앞으로 주시마고 약속하신 바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3.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의 내용

(1) 감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지금 받고 있는 은혜를 계속 감사하고, 앞으로 약속하신 축복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감사로 시작하고 또 감사 속에 찬송이 나오며 우리의 발걸음 전부를 감사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성도에게는 감사가 있어야 기도가 나오고 찬송도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찬송이 효과가 없으면 그 예배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효과있는 예배의 첫째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감사하면 안됩니다. 감사가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빠지는 헌신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를 했으면 반드시 그 서원을 갚아야 합니다. 약속이란 사람 앞에서 지키면 신용이고 하나님 앞에 지키면 신앙의 결백입니다. 성도는 사람과의 약속에도 신용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약속을 잘 지키 바람직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도는 일이 잘되면 잘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잘못되면 내 책임인 줄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사람 앞에서는 신용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서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헌신이며 헌신은 곧 예배입니다.

성도에게는 삼일조 바치는 것이 헌신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감사가 없이 하는 헌신은 뿌리가 없는 열매와 같습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약속을 지키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2) 환난날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고 물어 보아야 합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앞으로 주시마고 약속하신 바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물리치셨습니다. 성도에게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거나 20년이 됐거나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믿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른 예배를 드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각 나라에서는 재판을 할 수 있지만 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심판은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으며 그것도 단심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재판장들도 하나님이 자기보다 높으신 심판자인 줄 알고 재판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재판을 잘했건 못했건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실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관할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특별히 성도부터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모시고 심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서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성급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

◇ 어버이주일을 맞으며 ◇



네 부모를 공경하라

조 윤 재
(목사, 8교구 지도)

십계명 제5계명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신 5:16) 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엡 6:1-3)고 했다.

이와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제5계명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5계명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부모와 자식간의 틈바구니가 점점 커지고 있고 부모의 권위가 평가절하 당하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사회 풍조에 휘말리고 있다. 급변 어버이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부모 공경의 막중한 계명을 다시한번 인식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1. 제5계명은 왜 중요한가

부모 공경의 5계명은 가정의 질서와 모든 사회 국가 질서의 기초요 모든 도덕과 행복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형제나 친척 이웃과 친구 등과의 관계를 맺기 이전에 가장 먼저 맺는 관계이다. 사랑과 관심, 수고, 아픔과 기쁨의 농도를 가장 진하게 가지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이 관계가 잘못되면 다른 모든 관계가 잘못되며 이 질서가 잘못되어 무너지면 다른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만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과 수고를 통하여 현재의 내 존재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며 공경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질서가 무너지면 그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 국가의 질서도 무너지고 교회의 질서도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세상 모든 질서의 근본이요 기초가 된다. 부모 공경은 꼭 나를 낳아준 부모님만 공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나아가서 모든 노인과 위사람에 대한 공경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2.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

1) 부모님께 대한 감사와 존경심을 가지고 공경해야 한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준 분이다. 부모님 때문에 오늘의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고 부모의 피가 내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다. 나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시고 교육시켜 주시고 출가시켜 주시고 돌보시고 회생하신 분이다. 자신들은 못먹고 헐벗고 못입으면서도 자녀를 위해서는 끔찍이도 사랑하시고 회생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물론 혹 까다롭고 못배우고 윤리적인 생활에 결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나의 근원인 부모인 까닭에 존경해야 한다. 옛말에 부모가 혹시 잘못된 것이 있을지라도 세 번 간하고 듣지 않을 때에는 울면서 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가? 아니 우리 기독교 자녀 가운데서도 장로의 아들이 부모를 죽이는 사람이 있고,

믿는 집 가정의 자부가 시부모를 학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기독교인이 먼저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다.

2) 순종함으로 공경을 해야 한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나 그 부모가 그를 장로들에게 고할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요 부모에게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효도 이야기가 나온다. 바로 룻이다. 오늘 현대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고부간의 갈등인데 룻의 효는 신앙과 부모 공경, 신앙과 고부간의 문제가 잘 조화된 장면이다. 정말 아름다운 한복의 그림을 보는 정감이 넘친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을 잘 순종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요 6:38).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요 7:16) 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바치면서 순종하셨다.

3) 부양해야 함인 공경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편의주의로 부모 공경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마가복음 7장 11절이하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온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의 근본정신을 어기고 있었는지 경고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봉헌의 맹세를 악용하여 부모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했다. 예수를 믿는 사람까지도 부모를 잘 공경치 않는 사람들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

오늘날 부모를 고려장 취급하는 자식이 얼마나 많은가? 효도관광을 미끼로 제주도나 버리고 오고 가정 화목의 이름하에 노인들을 혼자 살게 하여 이따 돌아가신 지 4일이 되고 심지어 20일만에 발견하는 예가 매스컴에서 고발한 지 이미 오래이다.

부모를 잘 부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바라고 요구하는 바를 만족케 해드림으로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한다.

예수님은 일찍 돌아가신 요셉 대신 목수일을 하면서 마리아를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까지 어머니를 걱정하여 사도 요한에게 뒷일을 부탁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린다

금년도 맞이하는 어버이주일을 당하여 그동안도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잘 공경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깊이 반성하고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잘 부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된 성도는 부모를 잘 공경한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 했다. 효도는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본자세이다. 이 한해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며 효도하는 자녀가 되자. 거기에 장수의 축복과 번영하고 형통하는 축복이 있다.



내가 아는 김성관 목사

이 두 란
(원로전도사, 상담실장)

부족한 사람이 충현교회 원로전도사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지난 32년 동안 이 교회에서 온 성도의 기도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셔서 이처럼 건강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케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1일 당회에서 후임 담임목사로 김성관 목사님이 결정된 순간 저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성관 목사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아는 바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김성관 목사님을 감히 줄필로 여러 성도들에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1. 기도로 바쳐진 아들

저는 대구에서 1965년 1월 26일 전도사로 부임했고, 고 차진형 전도사는 춘천에서 1965년 1월 25일 부임하셨습니다. 화물로 부친 김이 도착되지 않아서 아침마다 김창인 목사님 댁에서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하루는 사모님이 새로운 새색시(?) 같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세 아들 중 둘째 성관이가 신앙도 좋고 똑똑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들 중 꼭 한 아들은 주의 종으로 키우고 싶은데 어렸을 때부터 성관이를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의 부탁을 듣고, 제가 이 교회에 시무해 온 32년 동안 원로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꼭 김성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저는 전도사로서 제 자신을 위해 기도를 못할 때는 있어도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어서 매일은 못했어도 자주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김성관 목사님은 50이 다 되도록 주의 종의 길을 가지 않다가 어느 주일 저녁예배후 저를 찾아오셔서 “전도사님, 저 신학교 들어갔습니다”하는 말을 하는 순간,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김성관 목사님에게 어머니의 기도 부탁을 처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지난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때 기도를 먹고 자란 아이는 결코 절길로 가지 않고, 특히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음을 너무 많이 보아 왔습니다.

2. 병원전도 노래모임

김성관 목사님 남매들은 천부적으로 목소리가 좋아서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그 당시 시립병원에는 폐병이라든가 행려병자들을 수용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지금은 폐병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암과 같은 병이었습니다. 전염이 될까봐, 가족을 떠나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을 경찰이 모아서 그 병원에 수용시켰습니다.

김목사님의 자녀중 김성관 목사님과 첫딸 영신씨가 ‘노래모임’을 만들어 고생하는 폐병환자들에게 주일 새벽 4시에 찬송과 물통을 들고 병원전도하는 모습을 주위에서 보아왔습니다. 밤새도록 자지 못한 환자들에게 매주일 젊은이들이 새벽에 찬송으로 전도하고 한달에 한번 씩은 형무소에 가서 사형수와 무기수들

에게 찬송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 노래모임은 지금도 매주 새벽에 병원전도를 후배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32년동안 주일 새벽마다 병원전도하는 모임이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안방결혼식

노래모임의 친구중 이귀자라는 처녀는 이화여자대학을 졸업한 신앙이 좋고 가정이 부유한 집의 딸이었습니다. 첫딸 영신씨가 이대 영문과를 다녀서 친구들을 노래모임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어느날 원로목사님의 사모님이 병환으로 위독해지자 어머니께 효도하기 위하여 갑자기 조천일 목사님의 주례로 안방에서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나는 그 결혼식을 눈물로 참석하면서 ‘세상에 이런 결혼식도 다 있다’ 하면서 속으로 두 사람의 성공과 행복을 빌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1남1녀의 어머니가 된 사모 이귀자 씨를 생각하면 김성관 목사님의 신앙도 귀하지만 새색시가 시어머니 누워 계신 곳에서 결혼식을 올리다니... 그 순종심과 착한 믿음이 너무나 귀한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날 밤 신혼여행도 포기하고 안방에서 기도와 눈물로 간호하며 지내었습니다.

김성관 목사님이 신학교 갈 마음을 결심하고 부인에게 캘리포니아에서 시카고로 장거리 전화로 부인의 의견을 물었을 때 “여보, 내가 당신 목사되기를 25년 기도했소”라는 말로 기쁘게 허락했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을 때 50넘어 남편이 가족을 떠나 한국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내조한 부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한 보잘 것 없는 원로전도사입니다. 많은 사람이 김성관 목사님을 잘 몰라 후임 당회장으로 당회에서 결정된 후 걱정하는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저의 평생의 소원은 가정도 없이 내 일생을 바쳐온 충현교회가 부흥되고 그동안 저와 같이 사랑을 나누는 교인들이 주 안에서 복받으며,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 성도님들과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김성관 목사님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신다면 원로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주의 종이 되실 줄 확신합니다.

에바다부 수화교실 개강

에바다부에서는 ‘수화교실’을 개강한다. 개강예배는 5월 18일 오후 3시에 에바다부실(교육관 109호)에서 있다. 관심있는 성도들의 참여를 바란다.

과정 : 초급, 중급, 고급, 통역(3개월)
시간 : 주 일 오후 3시~4시 30분(A반)
수요일 오후 1시~2시 30분(B반)
장소 : 에바다부실(교육관 109호)

취재수첩

충현의 가족 되심을
환영합니다!

지난 5월 4일(주일) 4부예배 후 갈릴리움에서는 우리교회에 출석한 하는 성도와 2개월 동안 등록한 새가족을 대상으로 한 새가족환영회가 있었다.

충현교회를 소개한 '아름다운 우리교회'라는 비디오를 상영한 후 환영예배를 드렸다. 이종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동석 장로의 기도와 특송에 이어 새가족들의 교회내 활동이 활발해지길 바란다는 김찬곤 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환영예배 후 새가족부 교사들이 새가족들을 위해 새가족 환영송을 부른 후 환영회에 참석한 새가족 중에서 간증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폐회 찬송을 다같이 부른 후 윤삼중 목사의 기도로 이날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새가족들이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고 그들의 믿음도 더욱 성장하여 교회 곳곳에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사랑의 헌혈 실시
주님의 사랑도 함께 나뉘

5월 4일(지난 주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본당 앞마당에서 사랑의 헌혈을 실시하였다. 이날 헌혈에 동참한 성도들은 370명으로 이들에게는 약간의 음식과 CD가 주어졌다.

헌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다음 헌혈할 때에는 더 많은 성도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



즐거운 어린이주일

푸르른 5월 어린이주일(지난 주일)을 맞이하여 목사님들이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를 찾아 가서 아이들을 위해 안수기도를 해주었다.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에 소속된 아이들은 반별 시간에 선생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끊임

없는 관심과 기도가 이어져야겠다.



▶ 유년부에서는 매주일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에 어린이들을 수송할 차량봉사자를 애타게 찾고 있다. 봉사를 원하는 성도들은 유년부 교사실(교관 441)로 연락을 바란다.

▶ 청년2부에서는 오늘 교육관 514호에서 김수지 교수의 '행복한 가정생활'이라는 특강을 실시한다.

▶ 장년3부에서는 오늘 구명선 전도사를 강사로 모시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시간은 낮 12시 30분이며 장소는 교육관 307호이다.

▶ 새가정부에서는 오늘 10시 30분부터 교육관 201호에서 박형용 목사(장년1부 지도)를 강사로 특강을 한다. 주제는 '내가 가정을 새로 꾸민다면'이다.

▶ 아멘찬양대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한다. 우리교회 등록 세례교인으로 찬양에 관심이 있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다. 희망자는 김신국 집사(☎ 557-4661)나 박경애 집사(☎ 525-7164)에게 연락하면 된다.

한편 아멘찬양대는 5월 24일 뿔뿔교회관에서 한국교회음악협회가 주최하는 성가합창제에 참가한다.

▶ 6교구 남녀전도회에서는 전도회 활성화를 위한 부부세미나를 5월 19일(월) 오후 6시 갈릴리움에서 실시한다. 강사는 채규만 교수(예신부 강사, 성신여대 심리학교수)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고 있는 지 점검하고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기도원, 부흥사경회

충현기도원에서는 설립 19주년을 맞이하여 오는 5월 26일(월) 저녁부터 30일(금) 새벽까지 기념 부흥사경회를 실시한다. 강사는 대구 복일교회의 담임목사인 윤희주 목사이다. 이번 부흥사경회에 성도들이 적극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함께 은혜받고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충전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군전도회, 진중세례식

군복음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군전도회에서는 지난 4월 23일 육군하사관학교에서 세례식을 거행하여 9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또한 5월 7일에도 육군 35사단을 방문하여 420명의 신병과 90명의 하사관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날 세례식은 안수집사회가 후원하여 더욱 은혜가 넘치는 세례식이 되었다.

(글/박주영 기자, 사진/이운구 기자)



'97 충현 젊은이와 함께

목표 2000-주수금작전

5월 12, 13일 / 충현 젊은이 세미나

통일, 선교 / 직업, 소명

강사에 허문영 박사, 박성수 사장, 방선기 목사
이준교, 김주경, 안석렬, 김영대 선교사

5월 14일(수) / 충현 젊은이 체육대회

일치와 화합을 위해 전체모임

오늘 저녁 충현 젊은이 헌신예배에 이어 5월 12, 13일 양일간 충현 젊은이 세미나를 개최한다. 장소는 갈릴리움.

충현의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연합행사를 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을 드리고 이제 내적으로 각자의 소명과 비전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세미나를 마련했다.

첫째날(12일, 월)은 젊은이들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결국은 땅끝까지 가라는 부르심에 근거하여 선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중에도 가장 어려운 북한선교를 바라보며 통일에 대한 바른 관

점을 정리하고 나아가 본 교회 파송 선교사들을 통하여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

둘째날(13일, 화)은 각자가 있는 곳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충성스럽게 살기 위해 직업을 주제로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과 직장선교연구소 소장인 방선기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교회에 소속된 20, 30대 젊은이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이런 기회에 청년, 대학부에 소속하면 좋을 것이다.

5월 24일(토) / 충현 젊은이들이 주관하는

알뜰이 시장이 열립니다

전시회, 일일찾집도 함께 열어

충현 젊은이들과 부모님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화합과 연합을 도모하며 이 행사를 통해 얻어진 전 수익금은 굶주린 북한 동포와 단기 선교 사역 참가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알뜰이 시장과 함께 전시회 및 일일찾집도 열립니다.

1. 알뜰이 시장

· 일시: 5월 24일 오전 11시~오후 5시
· 장소: 교회당 마당
· 내용: 세제류, 건어류, 과일류, 주방소모품, 잡곡류, 의류, 스포츠용품 등등

※ 알뜰이 시장을 위해 기증품을 받습니다. 기증할 물품은 테이프보급소 앞에

마련되어 있는 상자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 전시회

· 일시: 5월 24일~25일
· 장소: 본당 1층 전시장, 교육관과 본당 사잇길, 선교관 1층
· 내용: 충현교회 역사(사진전) 세계선교 및 북한 전시 성화 및 청년, 대학부 지체들의 작품 전시

3. 일일찾집

· 일시: 5월 24일 오전 11시~오후 5시
· 장소: 만나홀 및 알뜰이 시장 좌판

97년도 제2차 학습, 세례식 안내

5월 18일에 거행될 학습, 세례식을 위한 교육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주에 교육받은 학습 및 세례 회당자와 유아세례 희망자는 오늘 실시되는 교육에 참가하고 18일 찬양예배 시에 거행되는 학습, 세례식에 참가해야 한다.

요일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제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5월 4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이국병 목사)	교육관 314호	세례란? (김필수 목사)	교육관 307호		
	2교시 16:00~16:50	성경개요 (김재철 목사)	교육관 314호	교회론 (전형준 목사)	교육관 307호		
5월 11일 (주일)	1교시 15:00~15:50	구원론 (한근수 목사)	교육관 314호	구원론 (현장면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란? (김찬곤 목사)	교육관 309호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5월 18일 (주일)	찬양예배			학습, 세례식(본당)			